

5월 셋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가장 해외에 관심 있는 기업
재외동포신문 dongponews.net

코이카, 'K-방역' 기업 투자 유치 지원 활동 개시 (p. 1-3)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70>)

beauty nury
외장품신문

'유망' 할랄산업, 한국 브랜드가치와 동반 성장해야 (p. 4-5)
(<http://www.beautynury.com/news/view/88687/cat/10/>)

아시아타임즈

인니, 해외서비스 '부가세' 부과... "넷플릭스 이용요금도 인상?" (p. 6)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3800416840>)

아시아타임즈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인니 자동차업계 "안 팔린다 안 팔려" (p. 7)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5567685005>)

코이카, 'K-방역' 기업 투자 유치 지원 활동 개시

서정필 기자 승인 2020.05.15 15:33

- || 호주 정부와 함께 글로벌 혁신 투자 매칭 사이트 GIE에 코로나19 대응 페이지 개설
- || 투자플랫폼 와디즈 통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기술 투자전 개최



코이카 CTS 사업 의료보건 지원 사진 (사진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개발협력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협력 혁신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국내와 해외 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코이카는 먼저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호주 정부와 손잡고 코로나19 대응 혁신 플랫폼 '코로나19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를 새롭게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기존에 코이카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글로벌 혁신 기업가-투자자간 매칭 웹사이트인 글로벌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Global Innovation Exchange, GIE) 내에 개설된다.

GIE는 기존에 개발협력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지만 관심사가 일치하는 투자자들과 매칭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6년 전 세계의 혁신가·기업·개발협력기관·투자자·학계가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혁신'을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설된 사이트다.

현재 GIE에는 전 세계 45,000여 명의 회원, 13,000개 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1조 2천억 규모의 펀딩이 이루어졌다. 코이카는 2016년부터 이사회 멤버로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코이카 IBS 사업 의료보건 지원 사진 (사진 코이카)

GIE 코로나19 대응 혁신 플랫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을 보유한 75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예방·치료·진단,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관리, 정책 지원 등 총 12개 분야로 분류되어 등재되고 있으며, 이번 참여 기업은 '코로나 대응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으로 별도 카테고리화 된다.

코이카는 진단키트 활용과 수출 등이 식약처로부터 인증된 20여 개 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동 플랫폼에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설된 각 기업의 소개 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기업-투자자간 연락이 가능하며, 해당 기업은 언제든지 정보를 직접 업데이트 할 수 있어 중점 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다.

씨젠, 팍스젠바이오, 윈드롭 등 각각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보건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코이카의 개발협력 파트너사들도 이번 지원 혁신기업에 포함된다.

또한 코이카는 라이프스타일 투자플랫폼 와디즈(Wadiz)와 손잡고 ODA 사업 파트너기관의 투자전도 준비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코이카와 와디즈는 함께 협력해 감염병 전문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민간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ODA 파트너기관의 혁신기술, 상품, 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오는 5월 28일부터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기술'을 주제로 와디즈를 통해 본격 투자 청약이 시작되며, 그 전에는 18일 기업 사전 공개, 21일 밋업데이(카카오 와디즈 채널을 통한 기업과 기술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전에 참여하는 기업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을 보유한 KH메디컬과 ▲2차 감염 예방기술(주사바늘 처리기술)을 보유한 네오탑 등 코이카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참여한 2개 회사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현재 우리 혁신기업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어 국내외 투자 플랫폼의 활용은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이러스 종식 후에도 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코이카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필 기자

유망' 할랄산업, 한국 브랜드가치와 동반 성장해야

홍민영 기자 | hmy10@beautynury.com 최종수정: 2020-05-19 19:26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노장서 원장



전 세계의 무슬림 인구는 약 20억 명, 비중은 전체의 30%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 14억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아시아 시장은 한국화장품의 인지도가 높아 유망 수출 지역으로 떠오른다. 무슬림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할랄 산업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노장서 신임원장을 만나 할랄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을 소개한다면.

할랄산업연구원은 할랄산업 연구와 기업의 제품 수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할랄 전문기관이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크게 인증지원사업과 교육사업, 국제 세미나 등 학술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할랄화장품 인증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할랄화장품 인증지원 교육과 국제할랄화장품세미나가 예정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온라인 진행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의 업무성과에 대해.

할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할랄제품 생산, 유통, 물류 수요조사를 벌여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는 일이다. 매년 8월에 열리는 국제할랄화장품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각국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이슈를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화장품업체가 참여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두바이에서 편찬하는 이슬람 경제 연감에도 비(非)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국제 교류를 통해 해외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할랄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 할랄산업과 국내 산업의 비전은.

오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할랄산업은 추후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랄은 최근 음식을 뛰어넘어 화장품 등 소비재로 급격히 확산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이슬람권 협력기구(OIC) 산하 스믹(SMICC)이 할랄화장품 공통 표준 규격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규격을 적용하는 화장품이 늘어나면 할랄의 산업화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장품의 비전도 밝다. 한국화장품의 이슬람권 수출은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화장품의 이슬람권 수출액은 2018년보다 17.1% 증가했고 수출비중도 소폭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 한국화장품의 인지도도 높아 신규 브랜드의 진출 가능성도 높다.

한국 수출기업에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두 가지를 전하고 싶다.

첫 번째는 이슬람권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할랄인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니스프리나 네이처리퍼블릭 같은 기존 브랜드는 이미 현지에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만 해서는 인지도를 확보하기 힘들다. 이럴 때 할랄인증을 받으면 브랜드가치나 품질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할랄 국가와 협력해 공동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 일이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이들 국가의 자원과 우리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고품질의 저렴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해당 국가의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 소비자의 신뢰와 호감도 얻을 수 있다.

앞으로의 목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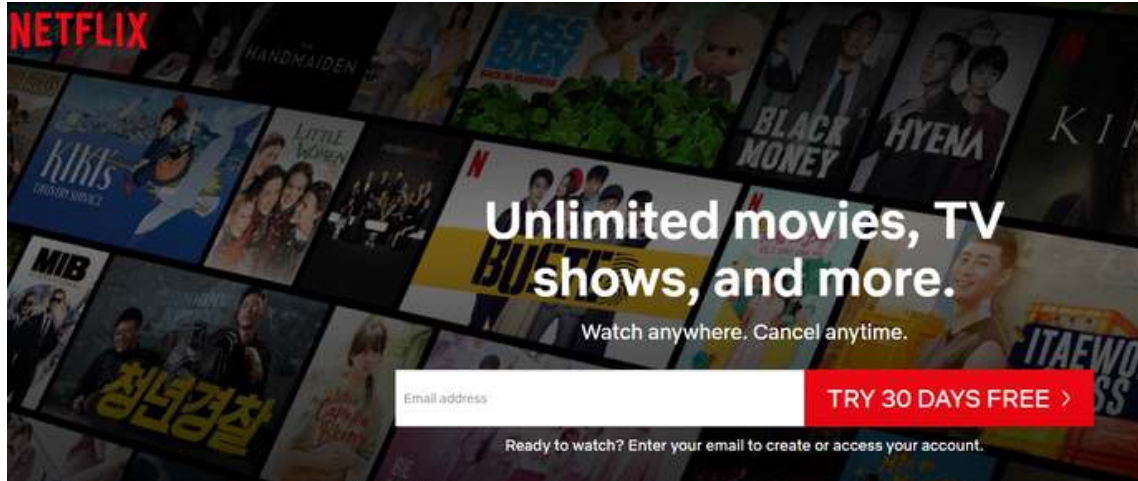
수출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해외 전시회 참가도 한 두 번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업체를 위해 인증컨설팅, 교육, 조사를 패키지로 묶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또 국내 할랄시장 콘텐츠를 해외 업체에 유료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상 중이다. 최근 한류의 영향, 성공적인 방역의 영향으로 한국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국내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할랄산업을 확장시키기에 적절한 때지만, 아직 국내 업체들의 참여도는 낮은 상태다. 이런 관심을 어떻게 산업화로 연결해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 업체,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을 세워야 난관을 극복하고 한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니, 해외서비스 '부가세' 부과... "넷플릭스 이용요금도 인상?"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8 11:52:47



▲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닌 수입산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지 넷플릭스 이용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수입된 음악과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비디오게임 등에 부가세 1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부가세는 해외에서 유입된 음악과 영화 스트리밍 등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부가세가 적용되면서 자국기업과 해외기업이 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는 넷플릭스와 세계 최대 음원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이용요금의 인상 가능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태근무와 온라인 학습 수요가 늘며 서비스량이 대폭 증가한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도 부가세가 적용된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줌 등에 부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나19 직격탄 맞은 인니 자동차업계 "안 팔린다 안 팔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9 11:32:31



▲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 1만8천명 넘어 (사진=연합뉴스/로이터)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인도네시아 자동차업계가 코로나19로 판매와 수출이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동차제조협회(가이킨도)는 올해 자동차 판매 목표치를 기존보다 40% 줄어든 60만 대로 전망했으며, 수출 목표치도 기존 35만~40만 대에서 17만5000대로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치솟는 등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자 자동차 구입을 미루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는 쌀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필수재가 아니므로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판매가 감소하는 품목이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는 발길도 끊겼고, 이는 자동차 판매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수출도 여의치 않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국가들도 코로나19로 경기가 둔화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요 감소를 예상한 수입업체들은 이전보다 수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자동차업계는 공장가동률을 절반으로만 유지하는 등 생산량 조절에 나섰다. 당장 수요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장만 가동했다가는 재고가 넘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하네스 난고이 카이킨도 회장은 "지난달 도매 판매량은 약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이달도 판매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다.